

韓國 農業構造의 南北地域性

— 日帝末期를 中心으로 —

吳 海 鎮*

I

1945年 8月 15日 日帝로부터 解放은 되었으나 民族의 分裂과 國土의 分斷이라는 또 하나의 試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日本軍의 武裝解除라는 名目으로 美蘇 兩軍이 進駐할 때 一時的으로 그어진 것으로만 알았던 38度線이 4半世紀 以上の 歲月을 두고 國境아닌 國境이 될 줄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1950年의 6·25라는 民族相殘의 悲劇을 겪은 후로는 分斷의 壁은 두터워만지고 相互不信은 짙어만 갔다.

그러나 多幸히도 最近에 이루어지기 始作한 南北간의 對話는 統一에 대하여 一沫의 希望을 주는 快學였다고 할 수가 있다. 即 解放으로부터 지금까지 서로 다른 思想과 體制下에서 相互不信과 衝突만이 거듭되어 왔으므로, 統一에의 展望은 遙遠한 것으로 생각되어 온 것이 事實이나, 昨今, 南北이 그간의 相互不信을 克服하고 平和的인 對話를 始作한 것은 民族의 將來를 위하여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서로 다른 體制 밑에서 4半世紀 以上을 成長해 온 南과 北이 統一을 위하여 接近하려면, 彼此 文化, 經濟, 政治, 制度等 相對方의 諸般條件을 깊이 研究하여 서로를 理解하고 判斷하는 準備過程이 切實히 要請되는 것이다. 最近, 몇몇 研究所에서 北韓問題를 活潑히 研究하게 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北韓問題의 研究는 多方面에서 緻密하고도 廣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拙稿는 이를 위한 至極히 初步的인 試圖를 해 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8·15 解放 當時의 韓國經濟는 北韓地域에 近代의 軍需施設이 若干 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農業이 中樞產業이었던 것만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1938年의 경우만을

* 文理科大學(大田) 敎授

예로 들어 보더라도, 農家戶數가 全體 家口數의 74.2%를 점하고 있었으며, 農業生産價額도 工産價額을 크게 凌駕하고 있었다. ① 解放以後 南北韓을 莫論하고 工業의 成長으로 農業이 點하는 比重이 크게 輕減된 것은 事實이지만, 現在에 있어서나 將來에 있어서 農業部門을 輕視한 어떠한 經濟施策도 成功하기 어려운 것이 韓國의 宿命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基本産業의 하나인 農業部分을 南北間에 對比하여 研究 分析하는 일은 南北의 經濟事情을 理解하는데 큰 意味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拙稿는 農業全般에 걸친 研究는 次置하고, 于先 그 前礎作業의 하나로 南北이 分斷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農業條件의 差異性을 理解하기 위하여 日帝末期에 있어서의 農業構造를 南北間에 對比해 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南北 兩地域이라고 말하는 것은, 勿論, 政治의 事情에 의해서 分斷되어진 現在의 南韓과 北韓을 指稱하는 것이지만, 南北의 分界線만은 現在의 休戰線이나 北緯 38度線과 一致하지 않는다. 京畿道와 江原道의 一部씩이 休戰線 以北으로 되어 있지만 資料의 處理上 京畿道와 江原道는 全部 南韓으로 看做기로 했다. 따라서 南韓은 京畿道, 江原道, 忠淸北道, 忠淸南道, 全羅北道, 全羅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 等 8個道이고, 北韓은 黃海道, 平安南道, 平安北道, 咸鏡南道, 咸鏡北道 等 5個道를 말한다.

統計資料는 可及의 日帝末期 것을 利用하려고는 했으나 1939년에는 空前의 大旱魃로 크게 凶作이 되었고 1940年代는 日帝의 發惡에 의한 破局的인 混亂期였으므로 統計資料 自體의 信憑度가 至極히 稀薄할 것으로 생각되어 1934年으로부터 1938年에 이르는 5個年間の 統計를 주로 使用하기로 했다.

II

行政區域上으로는 南韓이 8個道이고 北韓은 5個道에 不過하지만 面積에 있어서는 南韓이 108,351平方키로미터인데 北韓은 112,425平方키로미터로 오히려 北韓地域의 面積이 컸었다. ② 그러나 南韓은 北韓에 비하여 平野地帶가 많고 氣溫이 溫和한 탓으로 人口密度가 크게 높아 北韓人口의 2倍 以上을 가지고 있었다. ③ 面積은 大同小異한데 人口가 2倍以上이라는 데에 社會 經濟的으로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農業部門에도 크게 影響을 끼쳤던 것이다.

1934年으로부터 1938에 이르는 5個年간의 平均數字에 의하면 全國의 農家戶數 305萬餘戶中 그 7割에 該當하는 214萬3千餘戶가 南韓에 있었고 그 나머지 3割 程度인 90萬 6千餘戶가 北

註 ① 朝鮮總督府『統計年報』(昭和13年度)에 의하면 1938年度의 農産額은 15億7千4百萬餘圓이었는데 工産額은 11億 4千萬圓이었다.

② 上掲『統計年報』에 의함.

③ 上掲『統計年報』에 의함.

韓에 있을 뿐이었다. ④ 같은 期間의 耕地面積을 보면, 全國의 耕地面積 4,937,765町步中 그 52%가 南韓地域에 속해 있을 뿐이었다. 農家戶數는 南北間에 70對30의 比率이었는데 耕地面積은 52對 48로 거의 大同小異한 分布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農家 1戶當 耕作面積은 南韓地域이 北에 비하여 小規模일 수 밖에 없었다. 그 狀況은 表1에 의해서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다.

表 1 農家 1戶當 耕作面積

(1934~1938年 5個年平均)

區分 地域別	耕 地 面 積 (町)			農 家 戶 數	1 戶 當 耕 地 面 積 (町)		
	畝	田	計		畝	田	計
南 韓	1,310,227	1,261,074	2,571,301	2,143,824	0.61	0.59	1.20
北 韓	410,118	1,956,346	2,366,464	906,224	0.45	2.16	2.61
全 國	1,720,345	3,217,420	4,937,765	3,050,048	0.56	1.06	1.62

※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 의하여 作成함.

表 1에 의하면 南韓地域의 1戶當 耕地所有面積은 1町2段步로 北韓地域의 2町6段步에 비하면 그 2分の 1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全國 平均의 農家 1戶當 耕地所有面積에 비하더라도 4段步餘가 不足했다. 이것을 道別로 分析해 보면 南韓의 8個道中 江原道와 京畿道の 農家만이 全國의 平均인 1町6段步를 넘고 나머지 6個道の 平均 耕作面積은 全國 平均에 이르지 못했다. ⑤ 江原道는 山嶽이 많고 人口密度가 稀薄한 점 등으로 보아 北韓地域의 農業圈에 속하는 地帶이지만 政治的인 分界線에 의한 地域 區分이기 때문에 南韓으로 分類된 것이다. 한편, 北韓地域에 있어서는 5個道の 農家 全部가 全國 平均을 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黃海道를 除外한 4個道の 1戶當 平均耕作面積은 2町步 以上이었다. ⑥ 黃海道는 地域의 性格上 南韓의 農業地帶에 속하는 곳이지만 江原道와 같은 理由로 北韓地域으로 分類되었다. 하여튼, 農家 1戶當 平均耕作面積의 크고 적은 점에 있어서는 北韓地域이 越等히 有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北韓地域의 農業이 全般的으로 有利했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耕作地의 田畝別 構成, 耕作地의 利用率, 土地生産力 등 다른 여러가지 條件을 分析해 보지 않고는 農業條件의 有利 不利를 速斷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南北 兩地域의 田畝別 耕地構成을 檢討하기로 한다.

表 1에 의하면, 北韓의 1戶當 所有 耕地面積 2町6段1畝中 畝는 4段5畝에 不過하고 밭이 2町1段6畝나 되었다. 한편, 南韓의 1戶當 所有 耕地面積은 北韓農家の 半 以下에 지나지 안했

註 ④ 上掲 『統計年報』에 의함.
 ⑤ 上掲 『統計年報』에 의함.
 ⑥ 上掲 『統計年報』에 의함.

表 2 田畝別 耕地 構成

(1934~1938年 5個年平均)

地域別	區分	耕 地 面 積 (町)				百 分 比 (%)			
		畓	田	火 田	計	畓	田	火 田	計
南	韓	1,310,227	1,171,141	89,933	2,571,301	51.0	45.5	3.5	100.0
北	韓	410,118	1,614,802	341,544	2,366,464	17.3	68.3	14.4	100.0
全	國	1,720,345	2,785,943	431,477	4,937,765	34.9	56.4	8.7	100.0

※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 의하여 作成함.

지만 畓은 6段1畝로 北韓의 平均보다 1段6畝가 많았다. 北韓農家の 1戶當所有 耕地面積이 南韓農家の 2倍 以上이 되었던 것은 北韓의 農家가 그만큼 많은 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耕作地 全體의 田畝別 構成比率을 計算해 보면 表2와 같이 된다. 即, 南韓地域의 田畝別 耕地比率은 火田을 包含하여 49對 51이었는데, 北韓地域의 그것은 83對 17이었다. 다시 말해서 北韓의 耕作地는 1割7分만이 논이었고 南韓의 耕作地는 5割1分가 논이었던 것이다. 北韓地域의 耕作地는 大部分이 밭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大多數의 아시아 農業國들이 그러했듯이 韓國도 水田中心의 農業國이었으므로, 農土의 田畝別 比率은 農業經營上 有利 不利를 規定해 주는 最大要件의 하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北韓地域의 農家1戶當所有 耕地面積이 컸던 것은 收益性이 적은 밭이 많았기 때문이었으므로 그만큼 農業經營에 있어서의 有利性은 減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北韓에는 南韓의 4倍에 가까운 火田이 있어서 논의 面積에 肉迫하고 있었던 것도 크게 不利한 條件이었다고 할 수 있다.

農業經營과 耕作規模의 大小 關係를 논할 때 잊어서는 안될 일이 있다. 그것은 耕地의 利用度라거나 耕地의 利用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耕地面積에 대한 實際 耕作面積의 比率을 말한다. 1938年의 耕地利用率을 算出해 보면 表 3과 같다.

表 3 耕地의 利用率

(1938年度)

地域別	區分	耕 地 面 積	實 耕 作 面 積	耕 地 利 用 率
南	韓	2,582,646町	3,583,410町	139%
北	韓	2,375,077	2,497,968	105%
全	國	4,957,723	6,081,378	123%

※ 1.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 의하여 作成함.

2. 耕作面積에는 桑田이나 果樹園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北韓地域의 耕地利用率은 105%에 不過했는데 南韓地域의 耕地利用率은 139%나 되었다. 이로 인하여 南韓農家の 1戶當 耕地面積을 實耕作 面積으로 換算하면 1.67町步가 되므로 南

韓地域의 耕地의 狹隘性은 2毛作으로 크게 補完된 셈이다. 北韓地域의 耕地利用率이 낮은 것은 여러가지 自然條件이 2毛作에 適合치 않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北韓地域의 耕作規模는 南韓에 비하여 相當히 컸으므로 有利한 條件이었으나, 耕地의 大部分이 밭이라는 점과 耕地의 2毛作이 不可한 점 등으로 그 有利性은 큰 役割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III

1934年 朝鮮總督府는 朝鮮農地令이라는 一種의 小作法을 制定했다. 이때까지 韓國에는 小作制를 規制할 立法措置가 없었으므로 小作關係는 小作慣行이라는 慣習法에 의하여 運用되었다. 이 小作慣行은 傳統的인 小作慣習에 近代的인 私有財産制度를 加味한 것으로 地主의 利權만을 一方的으로 保障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問題가 생기게 되었다.

첫째, 小作慣行에는 小作料를 規制할 法的 根據가 없었으므로 小作料는 極도로 高率化되어 갔다.^⑦ 둘째, 小作期限에 대한 法的인 保障이 없었으므로 小作契約은 있었으나 그 契約은 地主나 舍音의 恣意에 의하여 때를 가리지 않고 一方的으로 解約되었다.^⑧ 當時의 韓國에는 地主權은 있었으나 小作權이란 存在하지 않았다. 이러한 小作條件은 日帝의 工業抑制策으로 말미암은 小作競爭의 激化로 더욱 惡化되어 갔다.

그러나 아무리 植民地라고 하지만 小作條件의 惡化를 언제까지나 放置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小作條件의 惡化에 의한 韓國農民의 疲弊와 不滿이 점점 더하여져 限界點에 이르렀으므로 大陸侵略을 圖謀하고 있던 日本으로서는 큰 不安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韓國農民의 不安을 多少라도 解消시키어 이 不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만들어 낸 것이 1934年의 農地令이었다. 이 農地令도 처음에는 小作令이란 이름으로 制定하려 했지만 在韓 日人地主를 中心으로 한 關係者들의 猛烈한 反對에 부딪쳐 農地令으로 名稱이 바뀌게 되었다.^⑨ 따라서 農地令이란 것도 그 內容이 극히 不完全한 것이었다. 從來의 小作慣行에서 크게 問題되었던 小作料의 料率에 대해서는 一言의 規定도 없었고 小作期限만을 3年 以上으로 規定되었다. 小作制度에 대하여 이 以上 論하는 것은 本題로부터 離脫되므로 省略하겠거니와 위의 說明만으로도 日帝下의 韓國小作制가 얼마나 惡辣했던가를 아는데 充分하리라고 생각한다.

小作制度가 이처럼 地主의 收奪權만을 最大限으로 保障하고 있던 社會에 있어서는 農民의 耕地가 自作地나 아니면 小作地나 問題는 農家經濟에 대하여 커다란 意味를 갖는 것이다. 그러면 耕地의 自作別 構成을 南北間에 對比하기로 한다.

註 ⑦ 朝鮮總督府『朝鮮의 小作慣習』(調査資料第26輯), P. 216.

⑧ 上揭書, P. 180.

⑨ 朝鮮農會『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 P. 659.

表 4 自小作別 耕地 構成

(1934~1935年 平均)

地域別		自 作 地				小 作 地			計
		畓	田	火 田	小 計	畓	田	小 計	
南 韓	町	404,543	535,108	89,933	1,029,584	905,684	636,033	1,541,717	2,571,301
	%	16	21	3	40	35	25	60	100
北 韓	町	146,671	833,763	341,544	1,321,978	263,447	781,039	1,044,486	2,366,464
	%	6	35	15	56	11	33	44	100
全 國	町	551,214	1,318,871	431,477	2,351,562	1,169,131	1,417,072	2,586,203	4,937,765
	%	11	28	9	48	23	29	52	100

※ 1.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의하여 作成함.

2. 火田은 全部 自作地로 보았다.

表 4에 의하면 全國 耕地의 52%가 惡辣한 小作條件에 屬해인 小作地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南北 兩地域으로 區分해 보면, 南韓의 農土는 40%가 自作地이고 60%가 小作地였는데 반하여 北韓은 農土의 56%가 自作地였다. 南韓에는 小作地가 自作地보다 2割이 많고 北韓은 自作地가 小作地보다 12% 많았다. 이것은 南韓에는 일찍부터 農業이 發達된 데다가 논이 많아서 地主階層의 成長이 컸던 結果일 것이다. 한편 北韓地域의 自作地에 火田을 包含시킨 것도 自作地의 比率을 높인 原因의 하나였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地主들이 밭보다는 논에 더 많은 關心을 가졌었다는 것은 自명한 일이지만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 본다면 表 5와 같다.

表 5 田畓別 自小作地 面積

(1934~1938年 5個年平均)

地域別		畓			田				
		自作地	小作地	計	自作地			小作地	計
					熟 田	火 田	小 計		
南 韓	町	404,543	905,684	1,310,227	535,108	89,933	625,041	636,033	1,261,074
	%	31	69	100	43	7	50	50	100
北 韓	町	146,671	263,447	410,118	833,763	341,544	1,175,307	781,039	1,956,346
	%	36	64	100	43	17	60	40	100
全 國	町	551,214	1,169,131	1,720,345	1,368,871	431,477	1,800,348	1,417,072	3,217,420
	%	32	68	100	43	13	56	44	100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의하여 作成함.

表 5에 의하면 南北 兩地域에 있어서 밭보다는 논이 壓倒的으로 많이 小作化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全國的으로 보더라도 논은 3分の 2가량이 小作化되어 있었다. 南韓地域

은 北韓보다 5%의 논이 더 小作化되어 있었으므로 그만큼 不利한 條件下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밭의 小作地 比率도 南韓地域이 10% 높았으나 그것은 北韓地域에 火田이 10% 많았던 데서 온 結果였었다. 即 熟田은 南北에 있어서 다 같이 43%가 自作地였었다. 火田이 10% 많았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自作地였다 하더라도 北韓農業의 有利性을 뜻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火田이 많다는 것은 農業의 後進性을 表現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結論의으로 말하면 耕地의 自小作別 構成에 있어서는 全體的으로 보거나 田畝別로 보거나 南韓地域의 小作地 比率이 若干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北韓地域에 火田이 많았기 때문이고 實際 差異는 논의 5%에 不過했다고 할 수 있다. 3分の 2 以上の 논과 2分の 1가량의 밭이 惡毒한 小作條件에 얽매인 小作地로서 地主의 收奪 對象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南北韓이 같은 事情下에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農家의 階層別 構成을 보기로 한다. 耕作地의 自小作別 比率이 農村事情의 好不好를 말해 주듯이 農家의 自小作別 比率도 農村事情을 理解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當時, 韓國農家에는 自作農, 自作兼 小作農(自小作農으로 略稱), 小作農, 農業勞働者라고 할 수 있는 被傭者, 山間地域을 流轉하면서 山을 태워 原始的인 農耕을 하는 火田民等 5階層이 있었다. 이제 全 農家의 階層別 構成表를 作成해 보면 表 6과 같다.

表 6 階層別 農家 構成

(1934~1938年 5個年平均)

地域別		階層別		自作農	自小作農	小作農	被傭者	火田民	計
		戶	%						
南	韓	戶		308,809	531,855	1,175,743	99,893	27,524	2,143,824
		%		14	22	55	5	1	100
北	韓	戶		238,977	201,243	405,100	13,111	47,793	906,224
		%		26	25	45	2	5	100
全	國	戶		547,786	733,098	1,580,843	113,004	75,317	3,050,048
		%		18	24	52	4	2	100

※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 의해 作成.

南韓地域에 있어서 自作農은 겨우 14%에 지나지 않는데, 小作農은 무려 55%나 되었다. 北韓地域에도 全 農家의 45%나 되는 小作農이 있었지만 南韓에 비하면 그래도 10%가 낮은 셈이었다. 특히 北韓의 自作農家比率은 南韓의 2배에 가까운 26%이었다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被傭者和 火田民을 比較해 보면 南韓에는 被傭者가 많고 北韓에는 火田民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다. 被傭者和 火田民을 합한 比率은 南北에 있어서 별다른 差異가 없었으나. 南韓地域에 1種의 農業勞働者라고 할 수 있는 被傭民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南韓의 農業水準이 높았다는 것과 地主의 侵透가 그만큼 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北韓地域에는

火田民이 많았다는 것은 北韓에 未開發의 山間地가 많았고, 農業水準이 南韓에 비해 그만큼 낮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被傭者와 火田民의 相對的인 存在는 農業에 있어서 南北間의 地域性을 가장 特徵있게 表現해 주는 事例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階層別 農家構成을 全國的으로 본다면 全 農家の 52%가 小作農이고 24%가 自作 兼 小作農인데 비하여 純粹한 自作農은 겨우 18%에 지나지 않았다. 結局, 農家の 階層別 比率는 南北 兩 地域으로 나누어 볼 때에 北韓地域이 南韓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若干 有利했을 뿐이고 全國的으로는 農村社會의 分解가 極甚하여 地主制가 크게 發達한, 극히 不健全한 狀態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극히 不合理하고 苛酷한 小作條件下에 全 農家の 52%가 小作農으로, 24%가 自小作이라는 半小作農으로 묶여 있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큰 社會問題가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日本의 統治期間中 韓國의 農業生産力은 繼續的으로 增加하고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小作農家の 比率이 每年 增加해 갔다고 하는 것은 注目할만한 問題라고 아니할 수 없다.^⑩

IV

農業經營에 있어서 自作農이 有利하고 小作農이 不利하다고 말하는 것은 耕作土地의 所有關係 以外的 모든 條件이 同一할 때의 이야기이고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自作農家라고 하더라도 그 耕作地의 殆半이 밭이라거나 地味 瘠薄하고 水利 不便한 天水畝이라면, 經營에 있어서 그렇지 아니한 小作農이나 自小作農보다 不利할 可能性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農土의 自然條件만이 아니라 經營規模와 같은 社會的 條件도 經營上의 好不好를 規定해주는 重要한 條件의 하나일 것이다. 이제, 經營規模에 의한 南北 農業의 地域性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日帝下 韓國農家の 經營規模에 대한 資料로서는 1926年 朝鮮總督府에서 행한 『農家經濟에 관한 調査』라는 것이 있다. 이 調査에서는 農家를 地主, 自作農, 自小作農, 小作農, 窮民의 5階層으로 分類하고, 各 階層을 經營規模에 의하여 大·中·小·細農으로 나누어 놓았다. 그러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地主란 農業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지만 直接的인 耕作民이 아니란 점으로 볼 때 一般 農民과는 區別하여 보는 것이 옳게 여기어지므로 이를 區分해서 表를 만들어 보았다. 于先 地主를 除外한 一般 農家の 經營規模別 戶數 比率表를 만들어 보면 表 7과 같다.

表 7의 經營規模別 農家構成을 보면 南北間에 커다란 差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畝中心의 南韓에는 3町步以上の 大農家가 겨우 6%밖에 안되었는데 北韓에는 그 3·5倍인

註 ⑩ 朝鮮總督府의 『統計年報』 및 農業統計表에 의하면 小作農家の 戶數는 每年 增加해 갔다.

表 7 經營規模別 農家構成

(192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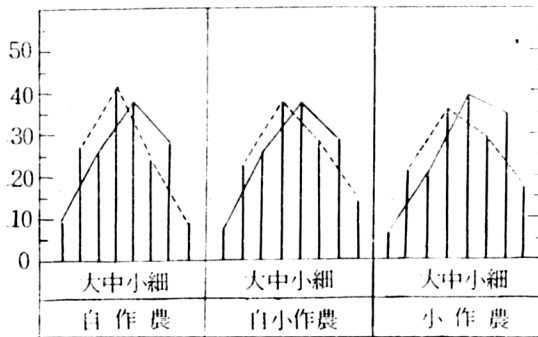
地域別	大小別		大 農	中 農	小 農	細 農	窮 民	計
			(3町以上)	(3町以下 1町以上)	(1町以下 3段以上)	(3段以下)	(無耕作)	
南 韓	戶		118,368	409,209	666,735	538,474	139,351	1,872,137
	%		6	22	36	29	7	100
北 韓	戶		162,939	266,583	193,385	89,034	22,358	734,799
	%		22	36	27	12	3	100
全 國	戶		281,307	675,792	860,120	627,508	162,209	2,606,936
	%		11	26	33	24	6	100

※ 朝鮮總督府 內務局 社會課 『農家經濟に關する調査』에 의함.

22%나 되었다. 貧農이라고 할 수 있는 小農, 細農, 窺民 등 세 階層을 합한 比率도 北韓이 42%인데 반하여 南韓은 72%나 되어 南韓農村의 높은 分解過程을 表現하고 있다. 中堅農家인 中農의 比率도 北韓 쪽이 14%나 높아 北韓農村의 健全狀을 나타내고 있다. 北韓地域의 1戶當 耕作面積이 南韓에 비하여 倍나 되었으므로 經營規模別 農家構成에 있어서 北韓이 有利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推測할 수는 있지만, 實際에 있어서도 相當히 有利했음을 알 수가 있다. 大農, 中農의 比率는 낮고 小農, 細農, 窮民의 比率가 높았다는 것은 南韓의 農村이 더 分解되어 悲慘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分明하다.

表 7의 大·中·小·細農은 自·小作을 不問하고 經營規模에 의해서 分類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自·小作別로 나누어 보아도 같은 結果가 나온다. 이것을 그래프로 表現한 것이 圖表 1이다.

圖表 1 農家の階層別 經營規模 百分比 (1926年)



※ 1. 前掲 『農家經濟に關する調査』에 의해 作成함.
 2. 黑線은 南韓地域, 點線은 北韓地域의 百分比.
 3. 大中小細의 基準은 表7과 같음.

左의 그래프에는 農家の 經營規模에 의한 南北間의 地域性이 一層 明瞭하게 나타나 있다. 南韓에 있어서는 自作, 自小作, 小作을 不問하고 어느 階層의 農家나 1町步以下の 小農과 細農이 全農家の 殆半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가장 낮은 比率의 農家가 大農이고 그 다음이 中農이었다. 北韓은 그와 反對로 大農과 中農이 어느 階層이나 殆半을 차지했고 細農의 比率가 가장 낮았

다. 그러므로 그래프 위에 나타난 南北 兩地域의 斜線이 어느 階層을 莫論하고 相對的인 斜面을 보여주고 있다. 卽, 南韓의 農家는 小農이 가장 많고 細農이 그 다음인데 반하여 北韓의 農家는 中農이 으뜸이고 그 다음이 大農(小作農에서는 小農이 次位)이었다. 다만 自作農, 自小作農, 小作農의 順으로 大農家가 줄고 細農家가 많아진 傾向만은 南北 兩地域의 共通點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37年에도 農家經濟를 調査한바 있는데, 거기에서도 經營規模에 의한 南北間의 地域性은 1926年의 調査와 같은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1937年의 調査에 있어서는 經營規模의 分類基準 等を 1926年度의 調査 때와 달리하고 있으므로 兩者를 精密하게 對比할 수는 없으나 耕作規模 1町步를 基準으로 한 農家比率만을 보더라도 南北間의 地域的인 差異는 뚜렷하다. 卽, 南韓에 있어서는 1町步 以上을 耕作하는 農家는 全 農家の 23%에 不遇했고, 1町步 未滿의 農家가 77%나 되었는데 北韓은 그와는 逆으로 1町以上이 68%, 1町以下가 32%이었다.^⑧

直接的인 耕作農民은 아니었지만 農業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地主의 存在狀況은 어떠했던가. 前掲 1926年度의 調査에 의하여 地主의 所有 土地面積에 따라 規模別 構成表를 만들어 보면 表 8과 같이 된다.

表 8 地主의 規模別 構成

(1926年)

地域別		規模別	大 地 主	中 地 主	小 地 主	零 細 地 主	計
			(20町以上)	(20町以下 5町以上)	(5町以下 1町以上)	(1町以下)	
南	韓	戶	4,279	12,135	23,685	41,149	81,248
		%	5	15	29	51	100
北	韓	戶	2,587	10,859	15,770	11,521	40,737
		%	6	27	39	28	100
全	國	戶	6,866	22,994	39,455	52,670	121,985
		%	6	19	32	43	100

※ 前掲『農家經濟에 관한 調査』에 의해 作成함.

1926年의 地主 總數는 12萬餘戶이었는데 그중 8萬餘戶가 南韓에 있었고 4萬餘戶가 北韓에 있어서 2對 1의比率이었다. 그러나 南韓의 農家戶數가 北韓의 2倍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分布比率이었다고 할 수 있다. 地主의 規模別 分布比率을 보면 南韓의 地主는 所有規模가 大·中·小·細 等の 順으로 小規模化하는데 따라 分布率이 急增하여 대단히 不均衡한 分布狀態였는데 반하여, 北韓의 경우는 20町以上의 大地主를 除外하고는 어느 程度 均衡잡힌 分布였다고 할 수 있다. 地主의 規模別 構成에 있어서 南北間의 가장 뚜렷한 差異點은 1町未滿의 土地를 所有한 零細地主였다. 卽 南韓에는 地主階級으로 부르기도 어려운 零細地主가

註 ⑧ 朝鮮總督府『調査月報』第9卷11號에 의함.

全 地主의 過半數인 51%나 되었는가 하면 北韓의 그것은 28%였었다.

南韓地域은 耕作地에 있어서나 農家에 있어서 北韓에 비하여 小作化가 심했는데도 大·中地主의 比率이 적고 零細地主가 壓倒的이었던 데에는 그만큼 理由가 있었을 것이다. 밭보다 논이 많았던 南韓은 높은 農業水準과 激甚한 地主의 浸透에 의하여 農村社會가 크게 分解되어 많은 農土가 大地主의 手中에 集中되었던 것이 그 理由가 아니었을까 한다. 100町步以上の 大土地를 所有한 地主의 分布狀況을 보면 이를 確實히 알 수가 있다.

表 9 百町以上所有 大地主戶數 (1937年)

地域別	國籍別		計
	韓	日 本 人	
南	450戶	258戶	708戶
北	205	59	264
全	655	317	972

※ 姬野實『朝鮮經濟圖表』167面に 의함.

表 9에 의하면 100町以上の 土地를 所有한 大地主가 972戶가 있었는데, 그 中 708戶(72%)가 南韓에 있었고 264戶(28%)만이 北韓에 있었다. 北韓의 大地主 264戶가운데 무려 165戶가 黃海道 한 道에 몰려 있었는데, ② 黃海道는 北韓地域의 어느 道보다도 논이 많아서 南韓의 農業地帶와 비슷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畜地帶에 地主의 浸透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大地主를 國籍別로 보면 韓國人은 655戶, 日本人은 317戶였는데, 317戶의 日本人 地主가운데 258戶(81%)가 南韓에 있었고 59戶(19%)만이 北韓에 있었다. 이것으로 日本人 地主들도 農業水準이 높고 논이 많은 곳에 關心이 컸던 것을 알 수가 있다. 北韓地域의 日本人 地主 59戶도 그 殆半인 47戶가 黃海道에 偏在했던 것도 ③ 같은 理由에서였을 것이다.

耕作地의 小作化가 심했던 南韓地域에 零細地主의 比率이 높은 反面 100町 以上の 大土地 所有者가 많았던 것은 南韓의 農土가 大地主의 手中에 集中되어 있었음을 表現하는 것이다. 南韓의 零細地主(1町以下 所有地主) 4萬1千餘戶의 1戶當 所有 土地를 모두 1町步로 看做하고, 5町 以下 1町以上の 小地主 2萬3千餘戶의 1戶當所有 土地를 전부 5町으로 假定하더라도 그들의 所有 耕地總面積은 15萬6千餘町에 不過하다. 이것도 最大可能面積이므로, 實際에 있어서는 그 半 程度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南韓의 耕地는 154萬1千餘町步가 小作地였으니까(表 4) 그 殆半이 大地主의 手中에 있었음이 自明하다. 北韓地域의 小作地도 亦是 大·中地主에 集中되어 있었겠지만 그 集中度가 南韓에 비하여 심하지 안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結局, 南韓의 農村社會는 農家의 經營規模로 보거나 地主의 存在 形態로 보아 北韓보다 不

註 ② 朝鮮統計協會『朝鮮經濟圖表』, P. 167.

③ 上同

健全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北韓의 農村이 健全했다는 것은 南韓에 대하여 相對的으로 말한 것이고, 결코 北韓의 農村自體가 健全한 狀態였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V

日帝下の 韓國農村은 農家와 耕地의 小作化를 보거나 經營의 零細性으로 보아 大端히 不健全한 狀態였는데, 이를 南北 兩地域으로 나누어 보면 南韓地域이 한층 더 어려운 事情이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南韓地域이 水田中心 農業地帶이었고 農業水準도 높아 南韓에 土地를 所有하거나 農業을 經營하는 것이 有利하였으므로 地主와 農民이 集中된 結果라고 해서 틀림 없을 것이다. 兩地域의 農產物價額을 對比해 보면 地主와 農民이 南韓에 몰린 理由의 하나는 알 수가 있을 것이다.

表 10 農產物價額과 그 百分比

(1934~1938年 5個年平均, 單位千圓)

地域別	收入別	植 產 物						植 產 物 外					合 計
		米 穀	麥 類	豆類· 雜穀	特 用 物	其 他	小 計	蠶業·農 畜產	農 加 工	自 給 料	小 計		
南 韓	圓	448,299	106,539	59,803	43,741	67,479	725,861	48,173	35,642	72,280	156,095	881,956	
	%	50.8	12.1	6.8	5.0	7.6	82.3	5.5	4.0	8.2	17.7	100.0	
北 韓	圓	148,689	21,695	108,282	10,604	45,874	335,144	29,871	11,149	43,920	84,940	420,084	
	%	35.4	5.2	25.8	2.5	10.9	79.8	7.1	2.6	10.5	20.2	100.0	
全 國	圓	596,988	128,234	168,085	54,345	113,353	1,061,005	78,044	46,791	116,200	241,035	1,302,040	
	%	45.9	9.8	12.9	4.2	8.7	81.5	9.0	3.6			100.0	

* 1.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의하여 作成함.

2. 便宜上 몇 개의 項目을 併合했으므로 元資料의 項目分類와는 差異가 있음.

表 10에 의하면 아직 農產加工業 등이 開發되지 못한 때여서 植產物의 生産價額이 壓倒的이었던 것은 南北을 가릴 것 없이 全國的인 現象이었다. 그런 중에도 南韓은 米穀과 麥類의 生産價額 比率이 北韓보다 越等히 높았고 北韓은 豆類와 雜穀 生産價額의 比率이 南韓보다 높았다는 것은 南北間의 두드러진 差異點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南韓의 米穀生産價額의 比率이 北韓의 그것보다 15.4%나 높았고, 北韓의 豆類와 雜穀生産價額의 比率이 南韓의 그것보다 19%나 높았던 것인데, 이것은 논과 밭의 相對的인 分布比率이 가져온 當然한 結果라고 생각된다.

南北 兩地域의 農產價額을 金額自體로 보아도 오직 豆類·雜穀의 生産價額만이 北韓에 많았고 그밖에 各 項目의 生産價額은 모두 南韓이 높았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米穀, 麥類, 特用作物, 農產加工 등은 모두 2倍乃至는 3倍의 差가 있었다. 農產物價額의 總額을 보아도 南韓이 68%고 北韓이 32%로 거기에도 2倍 以上の 差가 있었다. 耕作地 面積에 있어서는 南北이 大

同小異했는데 農産物價額에 있어서는 倍以上의 差가 있었다는 데는 注目할만하다. 이것은 南韓의 農業生産力이 北韓보다 높은 데서 온 結果라고 생각된다. 南北 兩地域의 單位面積當 農産價額을 算出해서 比較해 보면 이것은 더 自明해지리라고 생각된다.

表 10의 農産價額을 表 1의 耕地面積으로 나누어 보면 南韓地域의 1町當 農産價額은 343圓 이었고 北韓의 그것은 178圓이었다. 卽 南韓農土의 生産價額은 北韓에 비해 2배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農家의 經營規模가 南韓의 2배나 되었던 北韓의 強點을 相殺하는 條件이 되었을 것이다. 다시, 農家 1戶當의 農産額을 算出해 보면 南韓農家의 1戶當 農産額은 411圓이고 北韓農家의 1戶當 農産額은 464圓이었다. 北韓農家의 農産額이 53圓 程度가 높았지만 經營規模가 2배나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큰 差異라고는 할 수 없다. 南韓은 높은 農産額에 의해서 經營의 零細性이 크게 補完되었다고 할 수 있다.

南韓의 農産價額이 높았던 데는 自然條件과 社會的 與件 等 여러가지 原因이 있었겠지만 南韓農業의 主産物이 主食物인 쌀과 보리였다는 것도 큰 原因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논이 많다는 것과 깊은 關係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쌀과 보리는 다른 穀物보다 生産性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價格面에 있어서도 北韓의 主産物인 콩이나 雜穀보다는 越等히 有利했던 것이다.

그러나 單位面積의 生産額이 높다고 해서 南韓農村의 病弊가 治癒된 것은 아니다. 北韓에 비하여 相當히 높은 農業生産力을 가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農家의 零細性이나 小作化 等 病的인 農村社會構造를 救濟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單位面積의 農産價額은 2배나 되면서도 農家 1戶當 農産額은 北韓에 비하여 53圓이나 적었다. 이것은 農家의 零細性이 가져온 結果였을 것이다. 또 南韓地域이 小作에 關係되는 農家의 比率이 높았다는 것도 앞에서 보았다. 따라서 南韓의 農家は 農産額으로부터 小作料라는 名目으로 빼앗긴 分量이 많았을 것이다. 더욱이 小作料率도 南韓地域이 北韓보다 높았다하니^㉞ 南韓의 農民은 더욱 悲慘했을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VI

以上으로써 극히 不充分하나마 韓國의 農業構造에 있어서 南北 兩地域의 地域性을 보아 온 셈이다. 南韓地域의 農業은 北韓의 苛酷한 自然條件에 비하여 有利한 自然條件과 높은 生産水準을 가졌으면서도 自作農의 比率이 낮고 經營規模도 零細하여 社會的 條件은 오히려 不利한 立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植民地下의 韓國農業은 南北이 다 같이 아주 不健全한 狀態

註 ㉞ 朝鮮總督府의 『朝鮮の小作慣習』에 의하면 小作料率은 小作料의 種類에 따라 약간 다르나 一般的으로 南韓地域의 小作料가 北韓地域것보다 높았다.

였지만 相對的으로 보면 南韓쪽이 더욱 不健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南韓地域을 韓國의 代表的인 農業地帶로 보는 것이 傳統的인 見解였다. 그것은 南韓地域의 農業이 自然條件이 有利하여 오래전부터 開發된데다가 韓國의 主食物인 쌀과 보리를 大量으로 生産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農產物價額을 통해서 본 南韓의 土地 生産力이 北韓의 두배가량이었던 것도 또한 그 理由의 하나였을 것이다. 한편 南韓의 土地 生産力이 經營規模의 零細性を 크게 緩和해 주었으나, 土地의 集中, 農家の 小作化, 小作競爭의 激化 등 南韓農村社會의 矛盾은 如前히 커다란 社會問題였던 것도 事實이었다. 이로 인하여 南韓의 農村社會는 한층 더 分解되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北韓地域의 農業이 經營規模가 若干 커서 有利하게 보였으나, 土地生産力이 낮은 北韓으로서는 經營規模라도 크지 않고서는 農家經營이 不可能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南韓의 農業構造에 비하여 若干 健全하게 보였던 北韓의 農業構造는 農業上的 後進성과 不利한 自然條件이 가져다 준 不可避한 條件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南北 兩地域의 農業構造에 있어서 有利不利의 條件은 固定的인 것은 아니다. 南韓 農業의 痼疾인 地主의 問題는 解防後 土地改革에 의하여 일단 解決된 셈이다. 南韓農村의 또 하나의 病弊인 零細성은 아직도 解決되지 못하고 있으나 急速한 速度로 工業化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改善의 展望은 밝다고 할 수 있다.

北韓農業의 큰 弱點이었던 쌀 중심의 農業도 언제까지나 不利한 條件만은 아니다. 農業生産의 多樣化和 生産技術의 進歩에 의하여 쌀의 生産力도 커지고 쌀을 主食으로하는 食生活도 多少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논에 대한 쌀의 不利는 크게 緩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北韓은 農家の 經營規模가 크기 때문에 쌀의 生産力이 높아지고 田作物의 改善이 이루어진다면 有利한 農業地帶가 될 可能性이 크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北韓地域에 있어서 이러한 可能性이 實現되기 위해서는 農業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產業과 社會構造上에 커다란 變革이 앞서야 할 것이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Agricultural Struc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1934-1938)

Oh, Hai-jin

Summary

It is meaningful to compare some of the agricultural condi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34-1938. Kore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in 1945 by political reasons.

There were 10,835,100 hectares of land in the South, and 11,242,500 hectares in the North. But the South had farm-houses two times as many as the North: 2,143,824 vs. 906,224.

As a result, the average ares of per farmhouse in the North were two times as many as in the South: 119 ares vs. 258 ares. Thus, the agricultural conditions of North Korea were more favorable than those of South Korea in terms of the scale of management.

However, the South had more rice fields than the North. The average ares of water field for per farmhouse out of 119 ares was 60.5 ares in the South as compared with 44 ares among 258 ares in the North. There is no need to say that water field has been more profitable than dry field. The ratio of land using in South Korea was higher than in North Korea: 139% vs. 105%. Forty percent of the cultivated land of South Korea was cultivated by the owners and the remaining 60% was tenant farmland. In North Korea 56% of the land was cultivated by the owners and 44% was tenant land. In the case of farmhouse, only 14% of farmhouses in the South cultivated their own land and 55% of them cultivated only tenant land. On the other hand, 26% of the farmhouses in the North cultivated their own land and 45% was tenant farming. Low ratio in tenant land and tenant farming were favorable conditions for North Korea.

Let's compare the 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verage production of one jung-bo(99 ares) was 343 Yen in South Korea and 178 Yen in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was almost double. Average production of each farmhouse was 411 Yen in the South and 464 Yen in the North. It seems that this condition covered the shortage of land in South Korea.

Natural conditons of agriculture, i.e. warm weather were more favorable for the South Korean agriculture but there were more social handicaps in the South than in the North.